

1 동정

- ▶ 이수성 세계직지문화협회는 지난 6월 15일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 하얏트호텔에서 '제28회 출판경영자 세미나'를 열었다.
- ▶ 전용진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지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주 서귀포 칼호텔에서 '제29회 잡지발행인 세미나'를 열었다.
- ▶ 배기동 한국박물관협회 회장은 지난 5월 2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12회 전국박물관인대회'를 열었다.

2 화족

- ▶ 허성운 동방인쇄공사 대표의 장남 태욱군이 지난 6월 20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화족을 밝혔다.
- ▶ 신승순 (주)신승프린텍 대표이사의 장녀 미애양이 지난 5월 31일 강남웨딩문화원에서 화족을 밝혔다.
- ▶ 김현래 일지사 대표의 장녀 애경양이 지난 5월 29일 공향터미널 예식장에서 화족을 밝혔다.
- ▶ 김강 (주)성전기획 대표이사의 장녀 한아양이 지난 5월 29일 신라호텔에서 화족을 밝혔다.
- ▶ 함주석 대구경북인쇄정보조합 상무이사의 장녀 현정양이 지난 6월 20일 대구웨딩르네상스에서 화족을 밝혔다.

3 부음

- ▶ 배명수 (주)한성칼라 대표이사의 장모가 지난 6월 13일 별세했다.
- ▶ 김연중 (주)동다인씨주 대표이사의 부친이 지난 6월 7일 별세했다.
- ▶ 신기열 (주)삼일칼라팩 대표이사의 모친이 지난 5월 29일 별세했다.
- ▶ 박범석 한국하이델베르크 전문이사의 부친이 지난 5월 15일 별세했다.

4 변경

- ▶ 명성비즈니스프린팅(주)대표이사 황석고는 최근 상호를 명성엔투비로 변경했다.
- ▶ (주)통문화원의 대표이사에 최근 남경영씨가 취임했다.

인쇄단체 · 기관뉴스

Association news

북엑스포아메리카에 인협 한국인쇄관 조성해 인쇄문화 홍보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지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미국 뉴욕 Javits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북엑스포아메리카 2009에 한국인쇄관을 조성, 한국의 인쇄문화 및 경쟁력 있는 인쇄상품을 적극 홍보했다.

북엑스포아메리카는 통상 65개국 2천개 업체가 참가하고 6만여 명의 방문객이 관람하는 미국 최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전이다. 이 전시회에서는 일반 출판물은 물론이고 아동·교육물, 오디오·비디오, 지도·지구의, 예술서적, 종교물, 전문·기술·과학물, 심령과학물, 외국어물, 대학출판물 등이 폭넓게 전시된다. 북엑스포아메리카는 책에 대한 무한한 열정으로 출판사, 서점, 도서관 사서들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한편, 전세계의 전문가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저작권 판매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 개최됨으로써 세계 각국의 출판인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저작권 판매로 본다면 세계 최대 규모다.

한국인쇄관은 대한교과서(주), 두산동아(주), 청아문화사를 비롯해 22개 업체가 인쇄홍보물 및 브로슈어 등을 전시,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부스 이름을 Printing Korea로 하여 방문객이 한국의 인쇄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며, 고급 인쇄물, 미술인쇄물 등 우리나라가 외국 인쇄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인쇄물을 전시하여 수출 상담 활동을 지원했다. 한국인쇄문화홍보관에는 미술인쇄물, 고급책자, 성경, 사전, 캘린더 등 1천여 점의 인쇄물과 참여업체 카탈로그 및 홍보용 책자, 특수인쇄물 등이 전시됐다.

한편 인협은 이번 도서전에 직지심체요절 홍보를 위한 체험행사를 갖기도 했다.

각군 인쇄창 통합 국군인쇄창 창설

국방부는 최근 각 군이 운영하는 인쇄창을 통합해 국군인쇄창을 창설하는 내용의 국군인쇄창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군인쇄창 창설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상 비전투관리부대 운영체제 개선과제 중 하나인 각 군 인쇄창 통합 계획에 따라 인력과 예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인쇄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군인쇄창은 전·평시 국방부 본부와 합참, 국직부대, 육·해·공군에 소요

되는 인쇄물과 전자출판물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 장관 소속 하에 두며,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토록 했다. 국방개혁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군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군 내 외부에서 2년 계약으로 공개채용된 기관장이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권을 갖고 기관을 운영, 그 성과에 따라 책임을 지는 제도다. 인쇄창장은 영관급 장교나 계약 군무원이 맡도록 했으며, 인쇄창에 두는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 서울 서밋, 7월 23일 개최

세계 인쇄표준을 논의하는 첫 포럼인 '서울 서밋(seoul summit)'이 오는 7월 23일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아시아 최초로 열리게 되는 이번 포럼은 국제인쇄표준(ISO-12647) 컨퍼런스로 국내 및 아시아 인쇄산업 시장에 있어 국제인쇄표준에 대한 저변과 인식을 확대하고 유럽 및 북미로의 인쇄물 수출에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서울 서밋'에는 로체스터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 프린트 미디어 스쿨의 로버트 청 교수를 비롯해 미국 IDEALliance의 그래픽아츠분과인 GRACOL위원회의 게리 게락 회장, Ugra의 어윈 위드머 대표, Ugra JPA의 하마테루히코 학교장, 후지필름의 크레이그 리브 이사, Print Prorerites Committee의 스티브 스마일리 그리고 하이텔베르그의 군터 베스트만 박사 등이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서울서밋위원회는 "이번 서울 서밋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표준인증제도라든가 이와 관련된 연구 및 제도에 대해 접해봄으로써 각 나라의 실정에 맞고 국제표준에 준하는 표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인쇄물 수출의 경우 공통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제인쇄표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서밋'은 타임아시아와 뉴욕로체스터기술대학, 월간인쇄계, 미국그래픽아츠기술협회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해 기획 준비됐으며, 이번 서울개최를 시작으로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며 매년 개최된다. 내년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인쇄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제 인쇄표준인 ISO12647에 준하는 인증제 시행으로 공통의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상호간의 비즈니스와 교역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반해 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디자인협동조합, 산돌커뮤니케이션과 업무제휴

제주도디자인협동조합(이사장 김기범)은 최근 제주월컴센터에서 제주도 전용서체 개발을 위해 (주)산돌커뮤니케이션과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 전용서체는 국문 전용 서체와 영문 전용 서체 각각 3종씩 개발된다.

개발되는 '국문 전용 서체'는 도내 관광지와 유적지, 문화시설의 표지판과 공공기관의 내부 안내판에 적용되는 제목용과 본문용 글꼴 2종과 홍보물과 관광책자, 이벤트 포스터 등에 사용될 홍보인쇄물용 글꼴 1종으로 구성된다.

- ▶ (주)디자인페러다임(대표이사 조근성)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40-21로 이전했다.
- ▶ (주)성지정보기술(대표이사 지광환)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오장동 139-3으로 이전했다.
- ▶ 대중문화인쇄(대표 김주홍)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충무로4가 120-3으로 이전했다.

### 뱅크, 포르투갈어 직지 홈페이지 새단장

충북 청주시와 2007년 협약을 맺은 민간 사이버 외교사절단 '뱅크'는 직지의 해외 홍보단 조직과 5개 국어 홈페이지 구축, 직지 영문 지도 및 영문 소책자 제작 등 직지의 세계화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포르투갈어 홈페이지를 새롭게 새단장했다.

이번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포르투갈어는 인터넷 사용언어 분석결과 전세계 10대 인터넷 사용 언어 중 6번째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미 제작된 직지동영상은 국내외 유명 사이트에(국내 4개 사이트, 해외 6개 사이트) 등재해 전 세계 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에 올린 뒤 지난 2개월 동안 2570건으로 조사됐다.

홈페이지 [www.prkorea.com/portugal](http://www.prkorea.com/portugal)

### 인쇄식 복권 줄이고 온라인 복권 발행 확대

내년에는 인쇄식 복권의 발행이 크게 줄어들고 대신 온라인 복권의 발행은 12%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최근 2010년 복권 발행목표를 올해 계획보다 4.7% 증가한 2조 6720억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복권위원회의 내년도 복권 발행계획을 보면 인쇄식 복권은 발행계획에 비해 판매액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발행목표를 올해보다 32.2% 줄인 2670억원 정도가 발행될 예정이다. 대신 로또로 불리는 온라인 복권은 내년에 올해보다 12.2% 증가한 2조 2938억원 어치 정도가 발행될 것으로 복권위원회는 전망하고 있다.

### 서울인쇄조합, 제2회 정기이사회 개최



서울인쇄조합(이사장 조정석)은 지난 5월 21일 서울인쇄센터 7층 강당에서 2009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개회사, 전차의사록 낭독, 업무 집행상황 보고, 2009년 1/4분기말 재무제표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정석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시간이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 부의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사업보고 및 모든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중소기업중앙회, 2009 서울중소기업인대회 개최



중소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21회째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 기념행사인 '2009 서울 중소기업인대회'가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서울지방 중기청장 등 이 참가해 인사말로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별 강연 순서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중소기업인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열렸다. 서울특별시장상 모범중소기업 부분에는 재경가구산업업주의 박재식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7명이 수상했고, 모범근로자 부분에는 서울인쇄정보산업조합의 이재영 차장 외 2명이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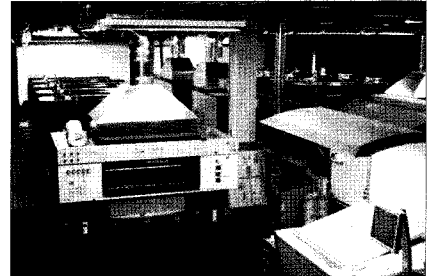
### :: 인쇄 · 프리프레스 뉴스

Printing Prepress news



### 동광문화인쇄, 하이델베르크 CD 102 2대 도입

동광문화인쇄(주)(대표이사 장길산)는 최신 드루파 버전의 대국전 인쇄기인 하이델베르크 스피드마스터 CD102, 2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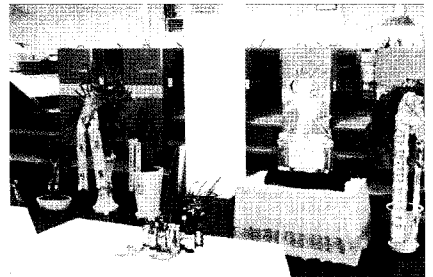
최근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감히 도입된 하이델베르크 대표적 매엽 인쇄기 스피드마스터 CD 102는 각각 5도와 4도 인쇄기로 고급 상업 인쇄물을 생산하게 된다.

동광문화인쇄에 설치된 최신 드루파 버전의 CD 102는 크게 프리넥 프레스 센터 컴팩트, 프리셋 플러스 휘더 및 프리셋 텔리버리를 갖추고 있다. 프리넥 프레스 센터 컴팩트는 새로운 인쇄기 중앙 콘트롤 센터로서 혁신적이며 공정 중심의 인텔리스타트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갖추어 스피드마스터 인쇄기의 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이델베르크 측은 밝혔다.

### 흥진씨엔피, 하이델베르크 CD102 도입 기념식

흥진씨엔피(대표 최인규)는 지난 6월 9일 최근 하이델베르크 대국전 인쇄기 스피드마스터 CD 102 5



색과 4색, 2대를 증설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흥진씨엔피에 설치된 하이델베르크 스피드마스터 CD 102는 '프리넥 프레스 센터'라는 드루파 2009 버전의 고성능 인쇄기 제어 센터를 갖추고 있다. 프리넥 프레스 센터는 작업 준비와 인쇄기 설정에서 인쇄 평가까지 모든 작업을 수행한다. 콘트롤 스테이션의 인체공학과 미세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계획 설계된 새로운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사용자를 더욱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며 인쇄기의 모든 구동과 조정 기능이 결합된 프레스 센터에서 사용자는 인쇄 공정을 계속 추적할 수 있으며 인쇄, 습수, 잉킹 및 코팅 유니트의 시동·멈춤을 할 수 있다. 또한 흥진씨엔피의 CD102에 장착된 프리셋 피더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용지 이송을 보장해 고급 상업 인쇄를 위한 생산성과 고품질을 제공한다.

### 한진피앤씨 일본에 포장재 특허기술 수출

BAG TYPE CASE 特許専用實施權 締結調印式

2009年 6月 5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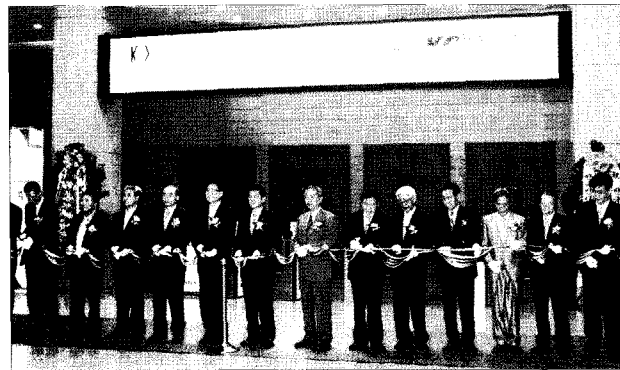
상업용 인쇄 및 첨단산업용 필름 전문기업인 한진피앤씨(대표 이수영)는 일본의 3위 포장재 업체인 다이나팩에 백타입 케이스 제조와 관련한 특허기술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일본에 비해 포장재 기술이 크게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는 국내 기술이 러닝 로열티 방식으로 일본에 수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진피앤씨는 이번 계약으로 다이나팩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받게 되며, 이에 따른 수익 규모는 연간 약 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계약 1년 후 관련 제품의 판매 상황에 따라 로열티 수준도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어 수익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진피앤씨가 수출한 이번 특허기술은 포장용 케이스와 쇼핑백을 하나로 결합한 아이디어 기술로, 2008년 1월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특허협력조약(PCT) 예비심사를 거쳐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 20여개 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한진피앤씨 이수영 대표는 "이번 계약은 대기업의 하청 산업에 지나지 않았던 포장재 산업이 포장재 선진국으로 평가 받는 일본에 기술을 수출할 정도로 성장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피앤씨는 백타입 케이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지사업부가 있는 충남 공주 농공단지에 약 1500평 규모의 백타입 케이스 생산공장을 신축 중이며, 오는 8월께 준공할 예정이다.

### 2009 국제포장기자재전 개최



경연전람이 주최한 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 2009)이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패키징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친환경 제품이 대거 선보였으며 관련 세미나에서도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제품은 물론 제품 포장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거셴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는 친환경포장 기술력 향상을 위한 표준화 워크숍을 비롯, 생분해성 에코패키징 기술교류 심포지움, 녹색성장을 위한 포장기술 세미나와 지속가능 패키징 사례 등에 대한 정보가 소개됐다.

### 지엠피 국제포장기자재전 참가

(주)지엠피(대표이사 김양평)는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열린 국제포장기자재전에 참가했다. 지엠피는 이번 전시회에서 인쇄산업용 라미네이팅 기술력이 집약된 써멀라미스 스타프 및 FOD 산업



관련 제품들을 전시했다. 전시기간동안 시제품을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해 호응을 받았다. 또한 디지털 인쇄물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강력접착 필름(Ultra Bond Films)과 인체에 무해한 식품포장용(FDA승인) 필름들을 선보였다. 지엠피는 이번 전시회 기간동안 내수시장 및 해외시장의 홍보를 통한 수출력 증대에 일정 수준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 한진피앤씨 국제포장기자재전 참가



한진피앤씨(대표 이수영)는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전시장에서 개최된 제14회 국제포장기자재전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진피앤씨는 주력 제품이며 국제 특허를 출원중인 백타입케이스를 비롯하여, LCD-TFT 보호 필름 등을 전시해 국내외 바이어들과 관람객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백타입 케이스는 이미 100만개 이상을 판매한 효자 상품이지만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지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으로 올해에만 약 6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진피앤씨, 2009 미래 패키징 신기술 수상



한진피앤씨는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국제포장기자재전시회에서 열린 2009 미래 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에서 서랍형 포장상자(백타입케이스)로 한국포장기술사회장상을 수상했다. 한진피앤씨의 서랍형 포장상자는 쇼핑백을 아예 없애 자원낭비를 줄이고, 스티로폼 등 일반쓰레기를 줄이는데 공헌했으며 100%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 2차 포장재를 없애자는 '그린 마일리지' 운동에도 적합한 제품으로 소개되었다.

### 산업안전공단, 대호기계 김상일 과장 초빙 강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5월 22일 서울북부지도원 8층에서 열린 안전검사 대상 사업장 교육에서 대호기계 서울사무소의 김상일 과장을 초청, 강의를 실시했다. 종이재단기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의에서 김상일 과장은 재단기의 주요 구조, 동작원리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과 더불어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펼쳤다. 김상일 과장은 "국내 상당수의 사용자들이 안전센서를 비롯한 재단기의 안전장치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검사 및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단지 생산성을 위해서 안전을 등한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재단기를 사용하는 업체에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상래 대표,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례 발표



(주)성도GL/(주)솔루윈의 김상래 대표이사는 지난 5월 19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문화경영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이정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관, 중소기업 중앙회 주최)'에 참가해 '성도GL의 문화경영 효과성 및 사례 발표'를 제목으로 하는 문화경영 사례와 효과성에 관해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 문화경영의 다양한 측면과 효과성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정량적인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토론하는 시간이 되었다.

## 정희호 전무 전주페이퍼에서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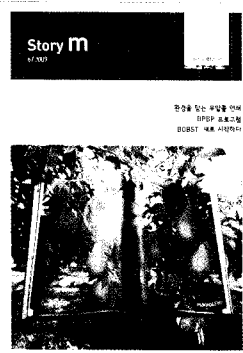


(주)성도GL/(주)솔루윈(대표이사 김상래)은 자사 정희호 전무이사가 지난 5월 19일 전주페이퍼의 특별강사로 초빙되어 'Customer Consultant & innovation'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강의는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성도GL의 모습과 사례를 소개하고 다양한 학습의 자료를 공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강의를 통해 성도GL의 이미지와 기업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였으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만로랜드코리아, 한국고객 소식지 Story m 창간

지난 수년 간 독일 만로랜드 본사 잡지 expressis verbis 한글판은 한국 고객과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왔다. 그러나 expressis verbis 한글판을 통해 만로랜드코리아(주)와 한국 고객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만로랜드코리아(주)는 한국 고객 잡지 'Story m'을 새로운 내용과 디자인 개방형 레이아웃, 한국 고객 중심의 콘텐츠, 한국 인쇄 시장의 이슈, BOBST 관련 기사, 지루하지 않은 분량 등으로 선보였다.

'Story m'의 m은 만로랜드를 의미한다. 이 새로운 잡지는 앞으로 꾸준히 만로랜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룰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고객과의 열린 대화와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성진애드컴, 2009 DTPIA 워크샵 개최



(주)성진애드컴(대표이사 이정희)은 지난 5월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한화리조트에서 협력사들과 함께 2009 DTPIA 춘계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에는 성진애드컴과 협력사 등 100여명의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정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1년에 한번 만나 성진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단합하고 직원 상호 간의 정을 쌓아가는 뜻 깊은 신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정희 대표이사는 "직원 모두에게 고맙다"며 모두가 합심해서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 순서에서는 최근 DTPIA 영등포센터 오픈 등으로 서울 서남부권과 지방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한 영업담당 김선태 이사에게 공로상이 수여되었다.

## 우수 저작 및 출판 지원사업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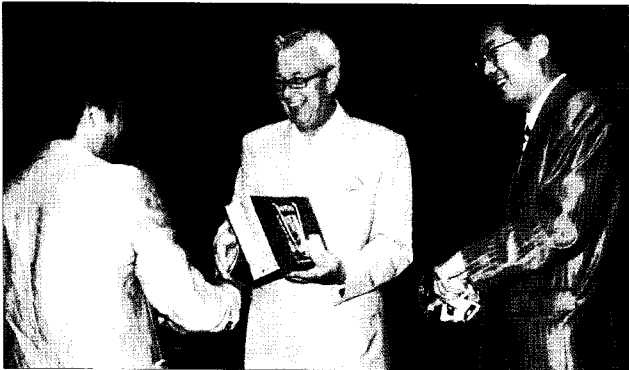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민병욱)는 최근 2009 우수 저작 및 출판 지원사업 당선작으로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맹성렬 지음, 밥상 혁명(강양구 외), 기술경영전략 플러스(이주성), 엄마가 하는 독서치료(이임숙), 유혹자와 희생양, 한국 근대소설의 여성표상(노지승) 등 20편을 선정했다. 선정된 작품에는 상금과 함께 출판·제작비 1000만원씩이 지원된다.

## 청주시, 2009년 1인1책 펴내기 출판원고 접수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책 펴내기 운동 3회째를 맞아 6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가족사, 자서전, 향토사, 창작문학, 체험수기, 북아트 등 출판 원고를 청주고인쇄박물관 직지사사업팀과 청주민예총에서 접수한다.

또한 접수된 출판 원고는 출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비 일부를 지원하여 출판하게 되고 12월에 출판기념회와 책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

## 만로랜드 영화시사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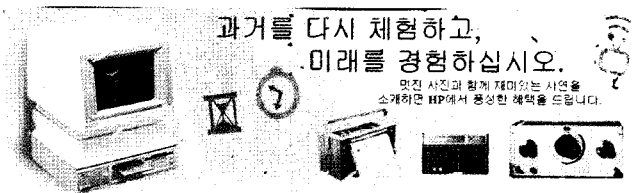


만로랜드코리아(주)는 지난 6월 9일 만로랜드 고객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하며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단 30명만이 영화와 식사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공간인 씨네드 셰프에서 2009년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힌 봉준호 감독의 작품인 영화 '마더' 관람 및 저녁식사를 갖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고객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행사였으며 정말 오랜만에 일상에서 벗어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만로랜드코리아(주)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만로랜드의 4가지 핵심가치 중 하나인 '신뢰할 수 있는 Reliable'이 강조된 행사였으며, 앞으로 더욱 고객의 신뢰를 얻고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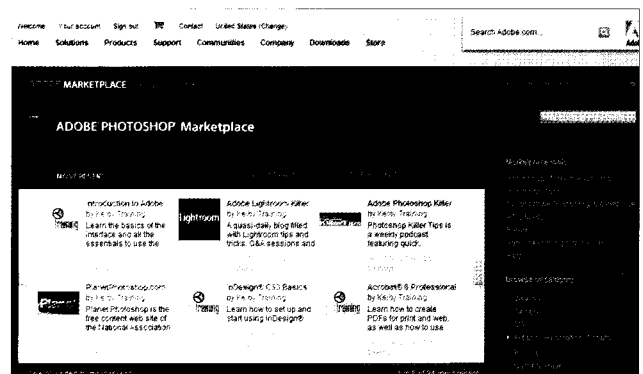
## HP, 디지털박물관 온라인 이벤트



한국HP(대표 최준근)는 'HP디지털박물관' 온라인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옛 기술 제품을 찍은 사진과 그에 얽힌 사연을 보내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제출한 응모자에게 HP의 최신 제품이 상품으로 수여된다. 각 국가별로 '가장 오래된 장치'와 '가장 주목되는 사연' 부문에 상품이 걸려 있으며 수상자는 HP 미니 110이나 HP 포켓 미디어 드라이브 PD3200 중 하나를 받게 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7월 10일까지이며, 수상자 발표는 7월 3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어도비, '포토샵 마켓플레이스' 오픈



한국어도비시스템즈 (대표이사 지준영)는 지난 5월 20일 전세계의 포토샵 사용자와 솔루션 파트너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집결시킨 글로벌 사용자 커뮤니티 '포토샵 마켓플레이스(www.adobe.com/go/psmarketplace)' 를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어도비시스템즈 웹사이트 내에 개설된 '포토샵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최신 포토샵 관련 자료, 다양한 플러그인(plugin)과 툴(tool), 포토샵 관련 커뮤니티 정보, 교육 자료 등 포토샵에 관련된 가장 방대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들이 커뮤니티에 자신들의 평가와 리뷰는 물론 각 작업 별로 유용한 툴에 대한 추천과 코멘트까지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계적으로 사용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사이트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진화를 주도해나가는 사용자 참여 형 커뮤니티로 벌써부터 사용자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홈페이지\_ www.adobe.com/kr

## 어도비 인디자인 CS4 제품군, POD 출판

한국어도비시스템즈 (대표이사 지준영)는 지난 6월 3일 전문적인 페이지 구성을 위한 자사의 출판 자동화 솔루션인 '어도비 인디자인 CS4 서버'와 HP의 주문형 인쇄 플랫폼을 통해 구매자의 요구가 반영된 '오바마 타임 캡슐'이 출시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의 지난 2년 동안의 정치적 여정을 기록한 정치회고록이자 사진집인 '오바마 타임 캡슐'이 화제가 된 이유는 구매자가 자신의 이름과 글, 사진이 담긴 맞춤형 서적으로 소장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중심적인 출판 마케팅 전략에 있다. 구매자는 인터넷 상에서 매우 간단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UI(User Interface)를 통해 자신의 사진이나 이름, 원하는 글 등을 작가가 만든 서적의 콘텐츠 속에

잘 어울리도록 반영시킬 수 있다. 이번 개인 맞춤형 출판 서비스는 어도비와 HP의 협력으로 가능했다.

홈페이지\_ [www.adobe.com/kr](http://www.adobe.com/kr)

## 와콤, 올해의 혁신 브랜드상 수상

와콤(한국법인 한국와콤 대표 서석진)은 지난 6월 2일 자사의 대표 태블릿 제품 3종이 유럽 최대 규모 브랜드 시상식인 '2009 플러스 X 어워드(2009 Plus X Awards, 독일)'에서 IT/게임 하드웨어 분야 '올해의 혁신 브랜드상(Most Innovative Brand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플러스 X 어워드는 기술, 스포츠, 생활용품 등 3가지 부문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매년선정하는 유럽 최대의 컨테스트로, 혁신성, 디자인, 사용자 편의성 등 3가지 기준의 평가를 통해 획기적인 성과를 보인 제품을 선정한다. 와콤은 자사의 뱀부, 인튜어스4, 신티크 12WX 등 3개 제품이 10가지 세부 평가항목에서 인증을 받아 IT/게임 하드웨어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로 평가 받았다.

와콤의 일반 사용자용 펜 태블릿 제품인 뱀부는 디자인, 사용성 및 인체공학 부문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 와콤 커뮤니티의 제안을 반영해 인공지능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 와콤의 전문가용 펜태블릿 제품인 인튜어스4는 다양한 범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와콤의 양방향 펜 디스플레이 제품인 신티크 12WX은 혁신, 디자인, 사용성, 인체공학 등 모두 네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홈페이지\_ [www.wacomkorea.com](http://www.wacomkorea.com)

## 동양잉크 에코-맥스, 업계최초 환경마크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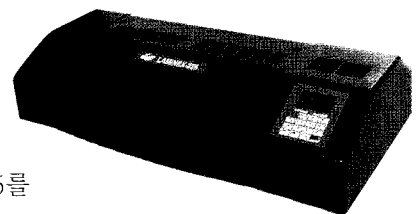


(주)동양잉크 (대표이사 최청운)는 최근 세계적인 환경규제와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무용제 잉크 '에코-맥스'를 개발, 업계최초로 환경마크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마크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 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이며 오프셋잉크부문에 환경마크의 획득은 동양잉크 에코-맥스가 최초이다. 에코-맥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잉크의 인쇄적성인 광택, 건조성, 내수성 등을 충족하고 사용자에게 휘발성 유기화합물에서의 안정성을 부여한 고품질 Non-Voc's 잉크이다. 에코-맥스는 친환경적인 설계가 되어 식품 및 장난감용 포장 인쇄에 적합하며 RoHS, PoHS, PVC가소제 등 전기전자 재료 포장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각종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엠피 파우치라미네이터 LAMINEX-325 개발

(주)지엠피(대표이사 김양평)는 신제품 파우치라미네이터



LAMINEX-325를

개발, 출시했다. 출시하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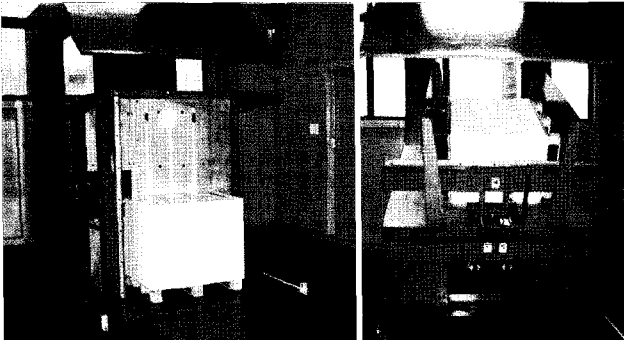
에 이미 전기용품 안전인증, RoHS(6대 유해물질 규제)에 합격한 이 제품은 2분 내에 급속 가열되며 30분간 조작이 없을 경우에는 대기모드로, 2시간 이상 조작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환경친화적인 절전형 제품이다.

LAMINEX-325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최적 조건을 설정해 놓은 100℃ 단축키에 다섯 단계의 속도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지엠피의 기술력으로 싱크로 컨트롤 시스템(Speed 1단계=온도 10℃=두께 50mic이 되도록 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표준화하면서 신제품의 가격을 30%까지 낮추면서 가격 면에서 보급형으로 개발, 보급해 라미네이팅기계의 새로운 세대교체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지엠피는 LAMINEX-325의 출현을 계기로 저가의 중국산에 대해 확연한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국내외 소비자들에게는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하여 국내 시장에서의 파우치 라미네이터의 판매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보다 개선된 성능의 기계를 저가에 대량생산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구조를 개선하여 원가를 낮추면서 후속 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 신안테크, M-PRINT에 용지반전기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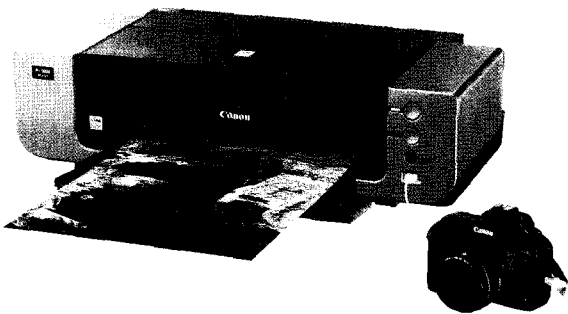
신안테크(주)(대표이사 김순호)는 용지 반전기를 최근 파추에 위치한 (주)M-PRINT에 공급, 가동에 들어갔다.

NEW TUNER RSA는 모든 동작이 원터치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강력한 힘의 기어터 모터 채용으로 중량물 반전에서 자주 일어나는 유압 실린더 파손의 문제점을 완전히 개선했다. 또한 인쇄용지 두께에 따라 에어 공급 및 인쇄물 추림시에 각도 조절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집진설비가 부착 되어 파우더 및 지분 제거후의 미세 먼지 등의 여과기능이 있다.

NEW TUNER RSA는 인쇄물 반전시에 인쇄물을 누르지 않고 반전을 시키기 때문에 인쇄 직후의 반전시에 뒤문음을 방지하는 기능 및 지분, 파우더 제거로 브랑켓 세척횟수를 감소시킴으로 인쇄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 한다.

신안테크는 각종 자동화 설비 및 우수한 인쇄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 Meiji사의 브랑켓, 영국 Ultrachem사의 인쇄재료, 일본 Nikka사의 브랑켓 세정장치 및 각종 설비, 브랑켓 세척용 습식, 건식 세정포를 판매하고 있다.

### 캐논, 전문가용 포토프린터 Pro9000MarkII 출시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대표이사 김천주)은 2009년 상반기 신모델인 프로페셔널 포토 프린터 Pro9000Mark II 을 지난 6월 4일에 출시했다. 신제품 Pro9000Mark II 는 우수한 포토 품질을 찾는 전문가 및 전문가급 아마추어를 위한 고속·고품질 A3+ 프린터이며, 캐논 카메라와의 호환성에 있

어서 시너지를 극대화한 제품이다. 디자인면에서도 Pro9000 Mark II 는 EOS와 디자인 철학을 공유하여 깔끔한 외관을 실현하였고 캐논 제품간의 연결 시에만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이미지 보정 및 편집이 가능하다.

캐논코리아는 Pro9000Mark II 는 DSLR급 카메라로 개인 취미 활동을 하는 동호인이나 촬영된 이미지의 색감을 수시로 출력하여 확인해야하는 커머셜 스튜디오, 다양한사이즈로 디자인 시안을 자주 출력해야하는 디자인 사무실 등 폭넓은 분야에 적합하다. 색감 표현에 민감한 포토 전문가를 위해 적색과 녹색 잉크로 일반 필름 사진을 뛰어넘을 정도의 광범위한 컬러영역을 표현하여 보다 다채로운 색감을 구현하고, 3차원적인 느낌의 표현도 강화했다.

### HP, 미니 110 등 출시

HP는 지난 5월 27일 모바일 및 데스크탑 기기와 기업의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업계의 주요 흐름들을 발표했다.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HP는 일련의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무장한 HP 미니 110, HP 팜빌리온 MS 200, HP t5730w 씬 클라이언트 대체 데스크탑 PC 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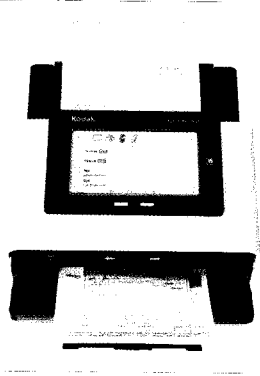
HP 아시아태평양 및 일본지역 퍼스널 시스템 그룹의 씨친 텍(See Chin Teik) 수석부사장은 “최근 라이프 스타일, 세분화되는 소비자군 및 소비자들의 니즈는 복합 기능을 가진 한 가지 제품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지닌 다수의 기기로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HP는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 기기의 융합의 개념이 하나의 기기에 모든 요소들을 집합시키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기능을 실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기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휴대용 기기들을 연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HP는 HP 미니 110 모델을 출시, HP 상감기법으로 외관을 보호하며 핑크 시크, 블랙 스월, 화이트 스월 등 3가지 색상으로 선보인 HP미니 110은 최근에 출시된 HP 미니 제품군 중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를 가진다.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네트워크로 통합된 디지털 홈 진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웹 2.0 환경은 기업 고객들이 새로운 기업 컴퓨팅 대안과 관련된 인식을 바꾸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HP는 이 분석에 공감,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로운 컴퓨팅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HP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솔루션에 대한 민감성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코닥, 스캐너 코닥 스캔스테이션 500 출시

한국코닥(대표 루이스 레벡)은 지난 6월 17일 부터 2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 2009에서 네트워크 스캐너 스캔스테이션 500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스캔스테이션 500은 오피스 문서관리 시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운용비용은 혁신적으로 절감시키는 차세대 기업용 네트워크 스캐너 솔루션이다.



네트워크 스캐너는 PC에 연결하지 않고 중앙서버로 바로 저장되어 업무 처리가 빠르고 사내 문서작성 기준에 따라 통일된 형식으로 저장 가능하여 문서 검색과 활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사용자 보안등급에 따라 접근 권한을 부여 높은 보안성을 유지 할 수 있고 스캔 한 내용이 별도의 PC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문서 관련 기록이 PC에 남아 있지 않아 이중 보안을 유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한국코닥 문서 이미징 부서 추홍서 차장은 “스캔 스테이션 500은 번거로운 문서 관리 업무를 단순화 시켜서 더욱 빠른 대고객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업무 사이클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에도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 제지뉴스

Printing Prepress news



## 한국제지, 대구고객 대상 무료 공장견학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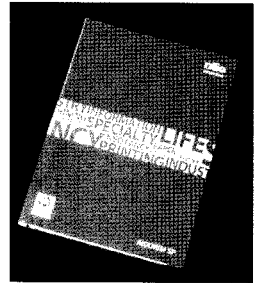
(주)한국제지(대표이사 전원중)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울산 당일치기 공짜 나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종이의 생산과정 무료 견학과 더불어 울산의 명물 고래 체험도 곁들였다. 당일치기 공짜 나들이 행사는 한국제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에 진행된 지난 6월 20일 행사에서도 동대구역에서 집결해 종이



만드는 과정 견학, 장생포 고래박물관 견학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다시 동대구역에 도착하는 것으로 일정을 진행했다.  
홈페이지\_ [www.hiper.com](http://www.hiper.com)

## 무림, 2009 샘플북 제작

무림(대표 김인중)은 최근 2009년 인쇄용지, 특수지 샘플북을 제작했다. 인쇄용지 샘플북은 지종별 Technical data, 인쇄선수, UV코팅과 라미네이팅 등 다양한 데이터와 후공정을 표기해 고객의 이해를 돕고 특히 네오아트 SE, 네오라벨 SE, 네오쇼핑백 SE 등 판매 주력지종과 환경마크 및 FSC인증을 받은 제품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특수지 샘플북은 산업용, 생활용, 정보용, 팬시용 등 4개 제품군으로 구성해 특히 고품격 패키지인 네오CCP와 국내 최고의 인쇄용지인 네오리셔리, 환경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종이 네오클린폴라리스 등 무림SP의 대표제품을 포함했다. 샘플북은 무림페이퍼의 영업사원들과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된다.  
홈페이지\_ [www.moorm.com.kr](http://www.moorm.com.kr)



## 무림페이퍼, 메세나 후원 결연



무림페이퍼는 지난 6월 10일 진주챔버오케스트라와 메세나 후원 결연식을 가졌다. 무림페이퍼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후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경남메세나협회에 가입,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주챔버오케스트라와 후원 결연을 맺었다. 경남메세나협회의 주최로 창원호텔에서 열린 이번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결연식에서 무림페이퍼는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적극 이바지 할 것을 약속했다.

### 삼원페이퍼갤러리, 새 단장으로 8월까지 휴관

삼원 페이퍼갤러리는 7월 1일부터 8월 중순까지 50일간 보다 편리한 전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사기간 동안 휴관한다. 새 단장 후에는 전시공간과 판매 공간이 분리되어 전시관람객들은 좀 더 아늑한 공간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종이 구매자들은 한눈에 종이를 보면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휴관기간 중에도 종이구매는 삼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페이퍼 모아(www.papermore.com)' 에서 항상 가능하다. 갤러리에서 구매했던 모든 제품이 페이퍼 모아에 구비되어 있다. 새 단장 후에는 개관요일이 변경 되어 일요일 휴관, 월요일에는 개관할 예정이다.

홈페이지\_ www.papergallery.co.kr

### 삼원특수지, 콩코르 디자인공모전2009 개최

(주)삼원특수지(대표이사 이상욱)는 콩코르 디자인 공모전 2009를 개최한다.

콩코르 디자인공모전은 로고 마크와 스테이셔너리 세트(레터헤드, 봉투, 명함, Compliment Slip)의 디자인을 통해 국제사회공헌과 국제교류, 인재육성과 디자인 문화산업의 창달이라는 의의를 일관되게 추구하는 스테이셔너리 세트 디자인 공모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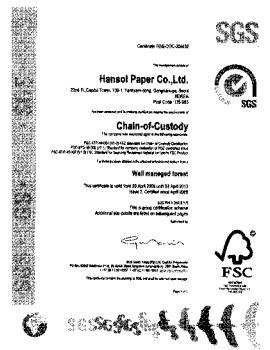


이번 콩코르 디자인공모전2009의 주제는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등 4개국 공통으로 그린피스(Greenpeace)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Forest defender for Climate'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세계의 사회적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지지하고 디자인을 통해 대중에게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산림보호에 관한 중요성을 홍보하자는 배경에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마감은 11월 20일이며 2010년 1월에 수상작 전시회와 시상식이 삼원 페이퍼갤러리에 열린다.

### 한솔제지, 전 사업장 FSC 인증 획득

한솔제지(대표 선우영석)는 지난해 4월 장항공장(인쇄용지 생산)이 FSC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최근 대전공장(백판지 생산)과 천안공장(특수지 생산)도 FSC를 획득, 전 사업장이 FSC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FSC 인증은 원시림 무단 벌목이나 유전자 변형 목재가 아

닌 친환경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 제품에 한해 부여하는 것으로 환경보호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특히 대전공장은 FSC 인증펄프 및 고지사용을 인정받아 FSC인증을 획득했으며 백판지에 대해 FSC 인증을 받은 것은 국내에서 한솔제지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솔제지는 전 사업장 FSC 인증획득으로 북미, 유럽 등 해외 선진 시장으로의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수 시장에서도 FSC인증을 계기로 친환경 기업으로의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해외뉴스

World news



### 만로랜드 2008 회계연도 실적발표



만로랜드 AG는 2008년 회계연도 실적을 발표했다. 신규 수주 및 매출에서 전년도 대비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세계적인 불경기의 여파를 감안하면 재무 건전성 및 그에 기반을 둔 안정적인 영업 전략과 운영 방침은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그 가치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했다.

만로랜드 AG의 2008년 실적은 신규 수주에서 전년도 대

비 21% 하락, 경쟁사들과 비슷한 하락폭을 보였으나 매출 면에서는 전년도 대비 11% 하락하는데 그쳐 18%의 감소를 보인 경쟁사들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또한 전대미문의 악재 속에서도 2008년도 5200만 유로(약 구백십억)에 달하는 수익(이자 및 세전 이익: EBIT)을 달성하였다는 점이다. 만로랜드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경쟁사들의 실적과는 상반되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자평했다.

### 만로랜드 인쇄재료 브랜드 '프린트컴'

만로랜드의 프린트컴(printcom)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여 인쇄 공정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탄생한 인쇄재료 브랜드이다. 프린트컴은 인쇄 능력(print competence)의 약자로 인쇄실(pressroom) 제품 품질에 대한 만로랜드의 입장이다. 이는 프린트컴 상표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만로랜드 기술부서의 테스트와 인증을 거친 제품임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그 제품을 구매 및 판매하는 다른 회사들과 만로랜드가 차별화 되는 점이다.



대다수 회사들은 한 제조 회사의 제품을 단순히 판매만 하는 반면에 만로랜드는 몇 개의 선택된 공급 회사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고객들에게 객관성을 갖고 추천하고 있다. 프린트컴 포트폴리오-롤러, 코팅액, 불량켓, 세척제, 습수액 및 윤활유 등은 여러 테스트를 거쳐 그 가치가 입증됐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고 가격 대비 성능 비율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프린트컴 제품으로 인쇄 재료를 교체하기로 결정한 인쇄 회사가 늘고 있다.

독일 Rheinfelden의 OZ Druck & Medien의 Roland Behringer 대표는 "프린트컴 팀의 뛰어난 서비스, 높은 수준의 기술 및 보다 전문적인 제품 소개를 통해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 일본 만로랜드 파워프린터 클럽, 기술교류회 개최

일본 만로랜드의 사용자 모임인 파워프린터 클럽은 최근 TKP도쿄역 비즈니센터에서 제2차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파워프린터즈 클럽이 인쇄업계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를 통한 경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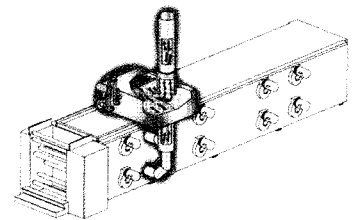
지식을 교환하고 토의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각 과제에 대한 해결 또는 기술 향상을 위해 연간 3회의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날 기술교류회에서는 일본 만로랜드의 대표이사의 인사말에 이어 환경보전추진협의회 고노이사의 인쇄현장에서의 환경보호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강연에서 고노 이사는 제품에 표기된 "환경보호인쇄 마크는 중요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인쇄물의 효과적인 세일즈 톨로서 작용,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붙잡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도 대단히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 사례를 소개했다.

강연이 끝난 후에 30명의 참가자들은 이전에 있었던 'UV 인쇄와 환경인쇄부회'와 '품질관리와 5S개선부회'의 2개 분과로 나뉘 2시간 이상의 토의를 가졌다.

### 친환경, 경제성 뛰어난

### Goss Ecobox heatset dryer 공급확대

하이텔베르그는 향상된 고스 에코박스 써멀 에너지 리커버리 시스템(Goss Ecobox Thermal energy Recovery System)의



세계적 공급망 확충으로 Goss Heatset dryer의 환경적 이점을 확대하고 인쇄 설비의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스 에코박스 히트셋 드라이어 시스템을 통해 순환되는 물은 건조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가열되며 가열된 물은 설비 내 기타 시스템과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로 사용되거나 보충 또는 대체하도록 전환되기도 한다.

미국의 Goss International 세일즈 부사장인 그라함 트레벳은 "향상된 Ecobox는 설치가 간단하며 환경 및 경제적 이점을 바로 선사한다"며 "이 장치를 설치한 인쇄사들은 소모 에너지를 크게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과 동시에 탄소발생을 줄인다"고 말했다. 트레벳 부사장은 전형적인 heatset 운전 인쇄 공정일 경우 생성된 에너지는 18개월이면 Ecobox 시스템 설치 비용이 회수되며 투자 회수는 건조기가 클수록 더욱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향상된 Ecobox는 Goss Ecocool T와 Ecotherm 모델과 같이 애프터버너가 내장된 건조기에 설치가 가능하며 소형 장치도 건조기에 장착된다. 추가적인 지면 공간이 필요 없으며 설치를 위해 인쇄기 가동 정지 시간도 최소화된다. 시스템을 빠져나오는 가열된 물의 내정된 온도는 섭씨 95도이다.

## KBA China Print 2009에서 호응 받아

KBA는 지난 5월 열렸던 북경 China Print 전시회에서 KBA는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KBA 전시장은 900㎡ 규모로 전시회에서 가장 큰 규모였으며 기술적인 면이나 디자인면에서 드루파 2008 전시회를 연상케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보였다는 평을 들었다고 전했다. KBA는 이번 전시회에서 5색도 Rapida 75 1대, 5개의 인쇄유닛과 코팅유닛 및 연장 배지부로 구성된 Rapida 105 1대 그리고 4색도 하이테크 중형인쇄기인 Rapida 106 1대를 전시했다. 후자는 전시회에서 '1만8천 세대'의 유일한 대표격이었으며 이에 따라서 많은 관객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번 전시회 기간과 그 이후 진행된 상담에서 Rapida 75에서부터 중형 시리즈인 Rapida 105 및 106, Rapida 142(102×142cm) 및 Rapida 162a(120×162cm) 대형 인쇄기까지 크기별로 20여개 제품들이 주문되었다. 대량주문은 중국 시장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기종인 KBA Rapida 105 기종에서 나왔다. 몇 년 전에는 중국의 사용자들에 의해 오로지 4색 또는 5색도 인쇄기만이 주문되었던 반면에 강조할 사항은 인쇄 제품의 인라인 마무리를 위하여 코팅 유닛이 장착된 인쇄기들로 뚜렷하게 바뀌는 경향을 보였다.

## 제록스, P&G에 통합문서관리서비스 제공

제록스(대표 앤 멀케이)와 후지제록스(대표 야마모토 타다히토)는 지난 6월 17일 세계적인 생활용품 제조업체 프록터앤갬블(P&G)의 전세계 지사에 향후 5년간 통합문서관리서비스 'XOS(Xerox Office Service)'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P&G는 전세계 80개국에 13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13개국의 지사에 대한 통합문서관리는 후지제록스가 담당하게 된다. 제록스와 후지제록스는 전세계 P&G 지사의 사무기기와 문서환경에 대한 전사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P&G는 이를 통해 총소유비용의 20~25% 정도를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P&G의 문서환경 전반을 책임지게 된 XOS는 MPS(Managed Print Services)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제록스의 문서관리 아웃소싱 서비스로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 기업의 모든 사무기기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문서 출력량 관리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배치 등을 통해 기업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P&G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 사장이자 최고정보책임자(CIO)인 필리포 파세리니는 "통합문서관리로 P&G의 글

로벌 프린팅 환경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RAKO Etiketten, 중국에 첫번째 Gallus RCS330 공급

독일 RAKO 그룹은 중국 항조우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열었다. 새로운 생산 설비의 중심에는 Gallus RCS 330이 있다. RAKO 그룹은 지난 1969년 독일에서 설립되어 현재 1천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고품질 라벨 인쇄 업체이다. 이들은 식료품, 화장품 또는 유성 화학제품, 홀로그램이 포함된 항공사용 보호 라벨이나 출입증 등 모든 종류의 라벨을 제작하고 있다.

RAKO는 상하이에서 180km 떨어진 항조우 공장에서 고품질 접착 라벨을 공급하게 될 예정이다. 이 설비에는 완벽히 구비된 12도 Gallus RCS 330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시아에서 Gallus RCS 시리즈의 성공적 성과를 대변하고 있다.

겔루스 그룹의 펠릭스 에거는 "Gallus RCS 330/430은 최대의 작업 유연성을 제공하며 하나의 기계를 사용하면서 스크린 인쇄, 핫 포일, 콜드 포일 및 엠보싱 등 어떤 원하는 후가공 공정도 결합시킬 수 있어 거의 작업의 제한이 없다. Gallus RCS 330/430의 뛰어난 자동화로 다양한 수준의 장통 및 단통 라벨을 비용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후지제록스, LED 프린터 헤드로 기술상 받아

후지제록스(대표 야마모토 타다히토)는 자사가 개발한 고해상도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 프린트 헤드가 일본 화상학회로부터 제19회 기술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일본 화상학회 기술상은 전자사진과 NIP(Non-Impact Printing, 비충격식 프린트)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품질 개선의 업적을 실현함으로써 기술 발전에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기존 LED 프린트 헤드는 수많은 LED 발광소자의 광량이 일정하지 않아 컬러의 농도가 고르게 출력되지 않는 문제로 고해상도 출력이 어려웠다. 후지제록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00dpi의 고해상도 셀프 스캐닝 LED와 고하나의 ASIC로 모든 발광 소자들에 대한 정밀하고 통합적인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인 DELICS를 개발했다. 또한, 유리의 밀도와 순도가 균일해 광학적인 특성이 우수한 렌즈를 장착함으로써 선명하고 정확한 형태의 상을 만드는 것은 물론, 보다 단순화된 구조로 프린트 헤드의 소형화를 실현했다.